

위기의 中企 맞춤형치료 받고 매출 2배

도입 9개월 중기청 '건강관리시스템' 백신 효과 특출 445곳 신청 320곳 치유중...나눔테크, 해외시장 개척

#. (주)나눔테크는 지난 2009년 자 동심장충격기(AED)를 개발한 뒤 글로벌 기업(GE 등)과 경쟁해 국내 시장점유율의 30%를 차지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 매출이 줄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돼 중소기업청이 시범운영 중인 건강관리시스템을 신청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위해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기술개발자금(4000만원)을 비롯해 CE·FDA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제품언론홍보 지원을 받았다.

그결과 올해 9월까지 매출액이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으며 CE인증 까지 획득해 EU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도약에 도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은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시스템과 같이 '진단→처방→치유' 방식인 3단계 문제해결 프로그램으로 기업 경영 전반

에 대한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치유사업을 처방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돕는다.

창업·기술개발 등 자금지원을 비롯 기술·신용 보증, R&D, 국내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인력, 현장 예로 등 다양한 처방이 이뤄진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중소기업 445곳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이중 388개 업체가 건강진단 처방을 받았고 320개 업체는 처방에 따라 맞춤형 치유사업(총 1153억원)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의 경우 5954개 기업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이중 3796개 업체가 맞춤형 치유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이 이준)이 올 상반기(2~5월) 건강관리 시스템을 시행 중인 중소기업 202개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93개 업체 중 79곳(84.9%)이 건강관리 처방전(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업체가 14곳(15.1%)으로 조사됐다.

특히 맞춤형 치유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는 기술개발(37.4%)과 자금·보증(36.3%)을 꼽았으며, 마케팅·수출역량(9.9%), 컨설팅(8.8%), 인력(5.5%), 사업전환 M&A(1.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맞춤형 치유사업이 현업에 적용 가능한지 묻는 설문에서는 업체 73곳(78.5%)이 70% 이상 적용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곳(19.4%)이었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답한 기업(2곳·2.2%)도 있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먹으면 합격” 6월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이 수능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합격사과’를 선보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6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히든챔피언 포럼'에 참가한 디에스알제강(주), ㈜무등, 케이씨(주) 등 광주지역 대표 기업 10개 업체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지역 수출기업 세계 1위로” 수출입은행, 10개 강소기업 초청 포럼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이 6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디에스알제강(주), ㈜무등, 케이씨(주) 등 광주지역 10개 글로벌 강소기업을 초청 '히든챔피언 포럼'을 개최했다.

'히든챔피언'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기업을 지칭하는 뜻으로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글로벌 중견 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로 두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제도 안내와 히든챔피언 사업, 지적재산권 경영전략에 대한 강연과 지역발전 및 수출증진을 주제로 토론회 열렸다.

포럼 참가자들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경색으로 인해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금융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은미기자 emlee@

내년 전통시장 더 어렵다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실질성장률 0%대'

경기침체로 내년 소매유통업의 실질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유통업계 최고경영자와 유통전문가 등 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소매시장 규모는 240조원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소매시장 추정 성장률 4.2%보다 1%포인트 낮은 것이다.

특히 3%대로 추정되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편의점(16.8%), 인터넷쇼핑몰(10.9%), TV홈쇼핑(10.5%) 등이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은 경기부활에 따른 자영업자의 창업 수요 증가와 대형마트·기형점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백화점(5.1%), 슈퍼마켓(3.1%), 대형마트(2.1%) 등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전통시장(-2.7%)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들은 편의시설 부족(13.8%), 온라인시장 성장(11.7%), 대형유통업체 출점(10.6%), 대형마트·슈퍼마켓 배송서비스 강화(7.4%) 등이 전통시장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연합뉴스

KB국민은행 인턴 150명 채용

KB국민은행은 동계 인턴행원 150명을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11월 현재 3학년 이상 대학 재학(휴학)생으로 이달 19일까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급)자 등은 우대한다.

국민은행은 인문화제 소양과 사고력을 갖춘 인턴을 뽑기 위해 지원자가 읽은 인문도서에 대해 상반기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내용을 토론하는 면접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카드론 금리 인하 도미노

국민카드 0.8%P ↓...신한·현대·롯데 등 조정 예고

일부 카드사가 카드론 금리를 내리려는 등 카드업계에 고금리 장사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악탈적 대출'로 지목된 카드 리빙 서비스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카드론까지 문제삼을 듯 하자 금리 인하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카드론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오는 7일부터 최고·최저 금리를 일제히 내리기로 했다.

카드론의 일종인 이지론 금리는 기존 7.5~27.9%에서 7.5~27.3%, KB국민 가맹점론은 7.5~25.1%에서 7.5~24.6%, KB국민 우량직장인론은 7.1~16.7%에서 6.9~15.9%로 각각 낮춘다.

카드론이란 카드사가 회원에게 신용도와 이용 실적에 맞춰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카드론이란 카드사가 회원에게 신용도와 이용 실적에 맞춰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카드론 최고 금리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취득세 내년까지 50% 경감

정부, 경기활성화 위해 지방세법 개정

정부는 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돕기 위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일괄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사는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75% 깎아주기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改修)시 적용되는 취

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해 담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북이라 가능합니다

2000만원 소액 투자로 월 80만원의 수익

전북양식업의 전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 전북사업의 시장은 약35천억원에서 2조원의 사업으로 매년 성장하는 거대 산업이며 주요 수산물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현재 세계2위의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완도 전북
2011년 기준 약3700여명의 어민이 연간 7,400톤을 생산 3,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전북 일류화 상품개발을 위해 생산관리 유통 판매, 수출, 홍보지원, 관리 지원 등 총 14종 29개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치매 축산사업이란?
새끼 전복을 부화시켜 일정기간 키운 후 암컷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북양식업의 기반 산업.

(주)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
완도군 완도를 농공단지에 위치 약 33,000㎡(약 만여평) 1200개의 수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국내 최대 전북치매축산사업을 하고있다.

투자방법
● 2000만원 소액투자(1수조)후 월80만원의 배당 발생.
● 계약기간 : 6개월 단기계약 (단, 계약 종료후 원금은 100%환급하며 계약연장은 별도 협의.)
● 선착순 100수조에 한 하여 개인당 5수조에 한 함.
● 주·회 생산현장 방문 (희망자에 한함)

투자조건표

구분	1개월분	6개월분
2,000만원	월 80만원	총 480만원
4,000만원	월 160만원	총 960만원
6,000만원	월 240만원	총 1,440만원

신청계좌
■ 신청금 : 100만원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9-716801
■ 예금주 : (주)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 ■ 미계약시 신청금은 반환 됩니다.
■ 미인수산업어조합의 영어조합법인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한 제도지원으로 수산업법에 저촉 없습니다.

문의 전화 062-368-8100
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